

디자인을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미국 HPB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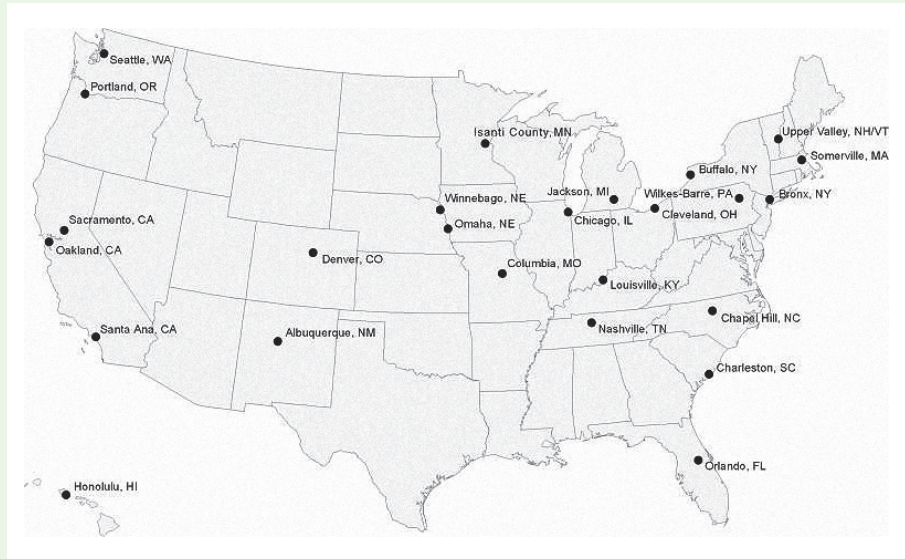
Healthy Places by Design

이성민
텍사스A&M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GLOBAL THINKTANK

규칙적인 신체적 활동이 건강에 유익함을 밝히는 많은 연구들에도 불구하고, 2001년 미국의 성인 절반만이 기본적인 신체적 활동량을 유지하고 10명 중 6명은 비만이거나 과체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아래 'Healthy Places by Design(HPBD)'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HPBD는 건강 또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패러다임에서 시작한다. 즉, 건강에 대한 교육, 행동적인 변화를 넘어선 정책과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2003년 당시 Active Living by Design 커뮤니티 파트너

자료: Bors 외(2009), 직접인용

“HPBD는 건강
또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라는
패러다임에서 시작한다.
건강에 대한 정책과
물리적·사회적 환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다.”

HPBD의 역사

HPBD는 2002년에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처음 시작되었다. 설립될 당시의 이름은 ‘Active Living By Design’이었고, 2014년까지 노스캐롤라이나대학교 국제보건대학원(Gillings School of Global Public Health)에 소속되어 커뮤니티가 활기차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써 왔다.

HPBD는 2002년 처음 연구 지원을 위한 계획서를 받기 시작하여 미국의 각 주로부터 총 966개의 계획을 받았다. 보건·교통·도시계획 관련 기관과 커뮤니티 개발 및 공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안을 제시하였고, 공간 범위는 작은 근린주거환경부터 여러 주를 통합하는 지역까지 다양하였다. 최종적으로 25개의 커뮤니티 파트너십에 대해서 5년간 총 20만 달러의 연구 지원금을 받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그랜트 프로그램은 각 커뮤니티의 활기찬 삶을 지원하고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지역 주민들이 신체적 증진을 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보행로·녹지·지역 공원과 같이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을 제공하였다. 마찬가지로 직장·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신체적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HPBD는 최근에 그 이름을 Healthy Places by Design으로 바꾸었다. 현재 총 35개 주의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각 커뮤니티가 보다 지속가능한 정책·환경·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비만, 만성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이 사는 지역에 집중하고 인종, 소득, 지역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비전과 미션

설립 이후 HPBD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장소 중심의 접근(place-based approach)을 강조해 왔다. HPBD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에 있어 최대한의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의 구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지역 전문가들과 함께 누구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에 집중한다. HPBD는 여러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여전히 미국 사회에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전략 계획과 프로그램의 수립 없이는 지속가능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강조한다. HPBD는 디자인을 통해 건강한 공간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Brennan, L. K., Brownson, R. C., & Hovmand, P. (2012). “Evaluation of Active Living by Design: implementation patterns across communitie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3(5). pp. 351–S366. 재인용

** Bors, P., Dessauer, M., Bell, R., Wilkerson, R., Lee, J., & Strunk, S. L. (2009). “The Active Living by Design national program: community initiatives and lessons learned”,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7(6). pp. 313–S321. 재인용

“HPBD는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건강한 삶과 삶의
질에 있어 최대한의
가능성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정책과 실천*

HPBD의 커뮤니티 액션 모델은 개인, 상호간, 정책적·환경적 전략과 관련하여 어떻게 개인의 신체적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각 커뮤니티가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자신들만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단기적·중기적·장기적 성과를 제시하고 지원한다.

또한 각 파트너십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해당 커뮤니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HPBD는 여섯 가지의 핵심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건강 형평성(Health Equity) 추구, ▲커뮤니티 참여(Community Engagement), ▲촉진적 역할의 리더십(Facilitative Leadership), ▲지속가능한 사고(Sustainable Thinking), ▲배움의 문화(Culture of Learning),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이 바로 그것이다.

건강 형평성 추구란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 건강 불평등을 제거하고 줄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는 건강 형평성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한번에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고 커뮤니티 차원의 전략을 세우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 즉,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 HPBD는 노인·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경제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개개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이러한 불평등의 요소를 야기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커뮤니티 참여는 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커뮤니티 계획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HPBD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촉진적 역할의 리더십은 일부 리더가 의사결정을 독점하지 않고 지역 구성원들이 권한을 수행하도록 역량을 키우는 접근을 의미한다. HPBD는 지역 구성원 개개인이 커뮤니티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책임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고란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커뮤니티 성과를 위한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기회에 대한 고려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 <http://healthyplacesbydesign.org/essential-practices> 재인용(검색일자: 2018.6.11.)

Active Living by Design의 커뮤니티 액션 모델



“HPBD는 디자인을 통해
건강한 공간을 만들고,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변화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PBD의 커뮤니티 액션 모델과 핵심 실천 전략
자료: <https://healthyplacesbydesign.org/essential-practices>

배움의 문화는 협력적인 나눔과 배움, 파트너십을 통한 정보 교류의 기회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HPBD는 점차 복잡해지는 커뮤니티 문제에 대해서 배움과 정보 획득을 통해 다각적·통합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웨비나(Webinar)·워크숍·필드트립·회의를 통해 다양한 교육 기회의 확대와 정보 획득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하며 이를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계획되고 목적이 뚜렷하며 상호적인 소통은 각 파트너십이 자신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주요 업무

· 컨설팅과 어드바이징(Consulting and Advising)

HPBD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역 전문가들과 공유한다. 특히 정책, 시스템, 환경적 변화를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가 조성된 사례들을 공유하고 각 지역 사회 파트너들에게 현재의 경향과 자원을 소개한다.

· 코칭과 기술적 지원(Coaching and Technical Assistance)

HPBD는 각 지역의 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커뮤니티와 관련된 전략을 선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각 커뮤니티가 건강한 커뮤니티로 자립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을 돕는다.

“커뮤니티 참여는
주민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커뮤니티 계획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이다.
HPBD는 특히
지역 주민들이
커뮤니티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강조한다.”

- **협력적 배움과 네트워킹(Collaborative Learning and Networking)**
HPBD는 통합적이고 협력적 배움을 통한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관리한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배움을 위한 재원을 공유하며 개인에 대해 또는 가상 배움공간을 통해 건강한 커뮤니티를 계획·평가·지원한다. 특히 연구비 보조기관과 각 지역 커뮤니티의 협력을 주선하고 커뮤니티 주도의 활동을 권장한다.

주요 프로젝트

- **건강한 아이들, 건강한 커뮤니티**

(Healthy Kids, Healthy Communities: HKHC)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로버트 우드 존슨 재단에서 주관한 프로그램으로, 전미 49개 커뮤니티에서 다학제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소아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지방정책, 시스템 및 환경 변화를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건강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에 주력하며, 사회적 취약계층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 **지자체 커뮤니티 지원(Wake County Healthy Community Grant)**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Wake) 카운티를 보다 건강하고 평등한 장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진행된 연구지원 사업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건강하게 개선하고 활기찬 삶(Active Living)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연구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재는 웨이크 카운티 주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포커스 그룹을 운영하여, 웨이크 카운티의 아이들이 당면하고 있는 건강 관련 문제를 파악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HPBD는 아이들의 건강한 체중조절과 전략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코칭 및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피츠버그에서 진행된 HKHC

자료: Active Living by Design(2014), Growing a Movement, p.16.



HKHC를 통한 커뮤니티의 변화

자료: <https://healthyplacesbydesign.org/wp-content/uploads/2014/09/HKHC-infographic.pdf>

· 건강한 삶을 위한 길(Pathways to Healthy Living)

미국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s)은 커뮤니티 기반의 자연환경 보존과 야외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역단체·비영리단체·지방정부 등과 전미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자연환경 보존, 야외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이 사업에서 HPBD는 교육·코칭·훈련 및 기술적 지원 등을 커뮤니티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마치며

HPBD는 미국 내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현재의 건강문제를 개인의 행동 변화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등장하였다. 사람들이 평소에 거주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과 그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생활패턴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큰 영향을 끼친다. HPBD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집중하고, 각 커뮤니티가 지닌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연계하여 바라보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에서도 지역 격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 불평등 문제에 주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HPBD와 같은 역할들을 수행해주기를 희망하며 글을 마친다.